

슬픔의 소리

최지승



토마스
들리는가, 보이는가
목없는 몸으로 굶주어 본
극락

흔날리는 수련
양떼들의 웃음소리

토마스, 우리는
벌거벗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춥지 않아.

우리는
무성한 잎사귀
바람의 부름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나무

시간은
자원이 흐르려져 흐르고
반짝이는 금빛이
다시 피물이 되어 바다를 이루네

토마스, 말해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

우리는 지금
불로장생하는 나무
디스토피아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작품 설명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죽어야 했던 16세기 영국 사회에서 최고의 법관으로 살았던 토마스 모어가 사형장에서 죽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배경으로 하였다.

참수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수염은 죄가 없다는 여유를 부리며 인간 공동체가 잘 운영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뜻을 기리며 오늘날 물질적 풍요 속에 있는 빈곤한 인간 심성을 대비하였다.